박찬일의 '밥먹고 합시다'

똑같은 장, 똑같은 김치

예전에는 식당이나 집집마다 장맛, 김치 맛 심지어 초맛도 다 달랐다. 친구네 집에 가도 음식 미각이 다른 건 장 때문이었다. 된장도 띄울 때 붙는 균과 효모가 집마다 다른 형태였다. 과학적으로 당연한 거였다. 술 담그던 시절에는 술맛이 크게 달랐다. 그러니 같은 콩으로도 장맛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예전(예전이라면 언제냐고 물으시겠는데 이게 참 애매하다. 70년대에도 담그는 집은 담가도, 사 쓰는 집은 또 사 썼으니까)에는 식당에서도 장을 담그고, 김장도 당연히 했다. 은퇴 요리사들을 인터뷰해 보면 그 큰 행사를 지휘하던 일을 필생의 자랑으로 여긴다. 이를테면, 배추 2천 포기며, 무 1천 개 같은 단위들. 물론 식당에서 장 담그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장을 담가 먹었다. 현대사의 아픔도 장에 새겨져 있다. 일제강점기 후반기에는 장 재료를 모두 군용으로 동원해 갔기 때문에 담가 먹을 장이 없었다. 일본은 고속으로 발효시킨 장을 군용으로 전투식량화하여 남방과 중국 전선으로 날랐다. 곡물에 장만 있으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아시아의 군인이었으니까. 물론 대다수는 미군 함선과 잠수함의 공격으로 정작 남방의 군인들에게 전달해 보지도 못한 채 태평양에 수장되었다. 고기들만 장맛을 보았을 게다.

전쟁이 끝났다. 일본은 패망하여 물러갔다. 해방 후 조선반도(당시까지는 한반도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기아가 휩쓸고 지나갔다. 일제 말기, 농사는 엉망이었다. 장을 못 담근 집이 부지기수였다. 한민족의 식사에서 장이 없다는 건 식사의 존재가 없다는 뜻이다. 이때 일본의 적산 시설을 불하받은 이들이 장을 만들어 시중에 팔았다. 장 잘 다루는 주한 화교들도 이 시장에서 꽤 재미를 보았다. 여담인데, 짜장면 소스로 제일 유명했던 '영화장유'가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팔던 회사라는 걸 아는 이는 드물다. 하기야 짜장도 된장의 일종이긴 하다.

당시 우리 선조들은 피란 가느라 장을 못 담갔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장은 1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가진 요리의 일종이었기 때문이다. 요리의 핵심이 없으니 무슨 음식 맛이 있었겠는가. 특히 이북에서 온 피란민은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이남에 기반이 없었고, 당연히 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설사 이북에서 담근 장이 있더라도 가지고 올 수 없었다. 운반 수단은 항아리가 기본인데 그 무거운 걸 들고 피란길을 걸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남한에 일가붙이가 있길 하나, 돈이 있어서 사 먹을 수가 있나. 그들의 고난은 매우 컸다. 그래서 그때 적산 불하나 가내공장에서 만든 속성 장이 시중에서 아주 잘 팔렸다고 한다. 현재 국내 굴지의 간장·된장 회사들은 다수가 이때 기반을 닦았다.

지금은 온갖 양념과 소스가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 시절엔 3가지 기본 장 말고 음식 맛을 낼 방법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기본 정책도 희한하게 작동했다. 60년대 초쯤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베란다에 내놓은 장 항아리가 영 불안했던 모양이다. 아닌 게 아니라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는 사고가 서울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바로 70년도의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였다. 물론 여전히 90년대에도 백화점과 한강 다리가 속절없이 무너진 나라가 우리나라였지만.

나라를 병영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려고 했던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활 곳곳에 참견했다. 장 안 담그기 운동, 담그더라도 전통 장이 아니라 속성 개량 장 담그기가 현대 시민의 덕목으로 칭송받았다. 인구가 늘고 산업이 성장했다. 된장·간장 공장이 밤새 조업해서 장을 납품했다. 이제 조선 장은 시골에서나 만드는 것이 됐다. 아니러니하게도, 한국의 맛은 결국 장이라는 걸 알고 다시 사람들이 장을 담그기 시작한 것이 90년대의 일이다. 이때 토속 된장을 담근 업자들은 큰돈을 벌었다.

공장의 장은 식당 밥맛의 차별성을 줄였다.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비슷한 장을 써서 일어난 일이었다. 90년대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입맛 까다로운 선배들이 식당에 데려가서 근엄하게 하는 말이 있었다. "이 집은 장을 다 담가 써." 참, 별 것 아니었던 일이 별것이 되는 세상이 왔던 것이다.

요즘 검색창에 무슨 요리 이름을 치면 황금 레시피란 말이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천편일률적인 조리법이 검색 결과를 죄다 차지하고, 유튜브에선 업소용 레시피 가르쳐 준다는 파워 유튜버가 최고 인기다. 당장은 입에 척척 붙지 않아도, 두 술 세 술 뜨면서 온몸에 깊게 감기는 맛이 있는 우리네 장맛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똑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장과 김치와 소스를 공유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외식업계를 장악했으니, 맛의 표준화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집집마다 다른 음식 맛을 보기에는 이제 그른 듯하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 입이 차분하게 그런 맛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말이다. 야박하다. 참, 힘든 세상이다.

〈음식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예뻐지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박 정 회
닥터박플란트치과 원장

40년을 공기업에서 일하시다 작년에 정년 퇴임하신 외삼촌이 올 초 치과에 오셨다. 늦게나마 퇴임을 축하드리고 무슨 일로 치과에 오셨는지 여쭈었다. "평생을 콤플렉스로 안고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시며 벌어진 윗 앞니 사이를 가리키셨다.

어렸을 때부터 보아 왔고 익숙해서인지 치과의사로서 17년째 진료하고 있는 필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삼촌은 그동안 그게 신경 쓰여서 크게 웃지도 못하고 긴 세월 입을 가리며 사셨다면서, 지금이라도 공간을 없애고 가지런한 이를 갖고 싶다고 하신 것이다. 죄송한 마음을 뒤로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정중치'(Mesiodens)라고 부르는 정 중앙에 위치한 작은 과잉치가 있어서 두 개의 중절치(가장 큰 앞니)가 붙지 못하고 앞으로 튀어나와 벌어져 있었다.

"교정하시죠" 라는 말에 "이 나이에 무슨" 이라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아주 간단한 장치만 붙이고 4~5개월이면 치료된다는 설명을 드리니 처음과 달리 밝은 얼굴이 되셨다. 설명 드린대로 가운데 작은 과잉치를 빼내고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교정 장치를 바로 붙이고 3주에 한 번 정도만 오시도록 했다. 4개월 후 교정 장치를 떼내고 감쪽같이 붙은 앞니를 보시며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 긴 세월 끙끙 앓고 산 게 억울하시다며 감사의 악수를 건네셨다.

이와 달리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나이 들수록 앞니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환자가 많다. 대부분 아래 앞니는 앞으로 나오며 삐뚤삐뚤해지고, 윗 앞니는 사이가 벌어지면서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다. 누구나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치아들끼리 닿아 있는 접촉점의 마모가 발생하고, 교합력의 영향으로 치아들이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치 모양의 균형이 깨진다. 또한 잇몸이 약해져 치아가 움직이는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미리 알고 예방하기가 쉽지 않으며, 사실 매번 환자들에게 설명하기도 길고 어려워 그냥 노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지만 교정 치료는 보통 학생이나 젊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벌어진 앞니 사이를 그냥 레진으로 메우거나 이를 깎아 씌우는 보철 치료를 하게 된다. 과연 나이가 들면 교정 치료를 할 수 없을까?

나이와 교정 치료의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다. 나이가 들수록 치조골의 밀도가 올라가고 교정 치료에 필요한 파골·조골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교정 속도는 느릴 수 밖에 없다. 치주염으로 치조골이 파괴돼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교정 장치의 부착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금 느리고 불편할 뿐이지 나이가 교정 치료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게 학계 정설이다. 그리고 중년 이후의 교정은 어릴 때의 교정과는 다르게 치아 전체의 이동이나 얼굴 모양의 변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비뚤거리는 앞니를 조금 더 가지런하게 하거나 튀어나온 치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도의 부분적인 교정 치료를 원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장치를 잘 사용할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치료할 수 있다. 치주염이 심하고 흔들리는 치아도 앞니라면 부분 교정으로 제 위치로 옮겨 놓고 고정시켜두거나 추후에 발치하더라도 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모양의 잇몸 모양을 갖는 임플란트 보철물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요즘은 크고 부담스러운 장치가 아닌 부분 교정을 위한 잘 보이지 않는 작거나 투명한 교정 장치가 많아 이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부분 교정이 가능하다.

가지런한 앞니는 나이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인상을 많이 좌지우지하며 더 중요한건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자기의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자식의 결혼식을 몇 달 앞둔 부모님, 사회생활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갖길 원하는 중장년, 위에서 본 필자 삼촌처럼 잘 보이지 않아도 본인이 느끼기에 불편하고 심지어 콤플렉스로 작용하는 치아라면 가까운 치과를 찾아 상담받길 바란다. 예뻐지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기 고

우리의 삶터를 되살리는 문화적 도시 재생

정 현 윤
광주시 문화기반조성과
문화시설기획팀장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도시 개발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라고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소작농이나 피난민들이 대거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는 '계획'이 미처 이뤄지기 전 '난개발'의 대상이 되었다. 도시 확장으로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나 지구(地區)들을 만들어 냈고, 확장이 불가능해지자 구도심이 그 대상으로 부상했다. 판자촌이나 노후 단독주택 지역을 쓸어내고 아파트단지로 바꾸는 '주택 재개발' 등으로 고층아파트들을 양산했다.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공간들은 사라지고, 오랜 기간 공간과 함께 부대끼며 살았던 사람들을 밀어냈다. 거기에 우리 모두의 자산인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며 도시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2010년대 들어서야 '도시 재생'이 대안으로 떠올라 동네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각 도시에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실시하며, 도시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다. 도시 재생 뉴딜은 기존의 도시 개발과 달리 구도심은 살리고, 노후한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람과 공간을 함께 재생하는 것이 그 골자다.

문화 중심 도시이자 문화 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문화 정책이 이러한 도시 재생과 연계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 곳곳의 변화를 이끌고, 성과도 높여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의 정체성, 즉 '광주다움'을 담은 문화적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마치 한의사가 침을 놓듯 적확한 지점을 골라 변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브라질 쿠리티바(꾸리찌바) 시장을 세 차례 역임하면서 쿠리티바를 세계 도시 혁신의 모델로 세운 자이메 레르네르 전 시장은 이러한 방식을 '도시 침술'(urban acupuncture)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광주에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5월 52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한 '전일빌딩 245'다. 전일빌딩은 인적 자원과 콘텐츠,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한 문화적 도시 재생 사례의 하나다. 광주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담긴 공간을 시민을 위한 공공 공간으로 제공하고, 다음 세대들이 역사를 기억·공유하며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 잠재력이 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2020 가을 시즌 호남 유일 '숨은 관광지'로 선정됐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줄지어 방문하고 있다.

도서관으로 조성하기로 한 '상무 쓰레기 소각장', 동명동 일대 골목길을 대상으로 한 '대표 문화마을', 극락강역 부지 인근에 방치돼 있는 '(구)현대시멘트 폐사일로', 임동 일대를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디지털 매체로 도시 재생을 시도하는 '(가칭)주민밀착형 디지털 창작소' 등이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전일빌딩 245'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문화적 도시 재생은 단순히 '관(官) 주도'의 물리적 개선 사업이 아니라 기존 시설의 역사성과 장소성, 물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 활동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해 온 공간의 가치에 문화예술이라는 현재적 기능을 더해 새로운 장소 가치를 창출하고, 사람과 사람이 장소와 지역이 만나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구조의 재창조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는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도시 재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공간을, 삶의 터전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 재생의 궁극적 목표는 도시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살리는 것이고, 떠난 사람이 되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광주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광주다움'의 가치를 발견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도시를 파괴하는 물리적 도시 재생이 아닌 광주 공동체를 회복하고 경제 생태계까지 튼튼하게 키우는 진정한 삶의 터전을 되살리는 문화적 도시 재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社 說

원주민 내쫓는 아파트촌 개발 누굴 위한 건가

황룡강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광주시의 계획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일대에서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은 형편도 넉넉지 않아 아파트가 들어서면 정든 마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평동산업단지와 황룡강 장록습지 사이에 위치한 광산구 지죽동 일대에 21개 택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9개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부지이고 나머지는 학교 부지(5개). 상업 시설(3개). 전략 산업 시설(2개), 유통 용지(1개) 등이다. 시는 이 사업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한류문화 콘텐츠 시설 등을 조성하고 직장과 주거가 함께하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아파트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장해 주고 그 일부 수익으로 전략 사업 시설을 건립·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인 셈이다.

사업 대상지에는 282세대 477명이 거주하는 수백 년 전통의 세 개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한데 개발 면적 가운데 공동주택이 3분의 2를 차지, 정작 원주민들은 충분한 보상도 없이 내쫓기게 될 처지라고 한다. 광주일보 취재 팀이 해당 마을을 찾았을 때 나이 든 주민들은 아파트촌 개발 소식에 대를 이어 살아온 마을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했다. 마을의 역사와 특성을 살리려는 고민 대신 손쉬운 개발 방식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컸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 명분 중의 하나로 녹지였던 이 일대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돼 폐기물 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급증한 주민 민원의 해결을 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주민 권리 보호는커녕 전략 사업 육성을 내세운 아파트 단지 개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시는 2년 전에는 황룡강변 수변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용도 변경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포화 상태인 아파트 중심의 난개발에 나서는 것은 건설업체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신호등 설치' 주민들 요구 진작 들었더라면

유치원에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엄마와 세 자녀가 화물차에 치여 세 살짜리 아이가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불과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참변이 있었던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당시 사고를 우려해 주민들이 신호등 설치를 요청했으나 당국은 이를 외면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4차선 도로에서 8.5 t 화물차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A(여·35) 씨와 유모차에 타고 있던 자녀 B(2) 양, 엄마를 따라가던 C(7)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었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A씨와 C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사고는 신호등만 설치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인재(人災)나 다름없다.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은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과 신호등 설치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국은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호등 설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고 현장은 올해에만 10건이 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만약 당국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호등을 설치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일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치밀하지 못한 교통행정 역시 불행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중요한 이유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닐 수 없다.

無等鼓

당신의 미소

늦가을 정취가 깊게 배어 있는 도심 속 사찰 무각사에서 마음 따뜻해지는 '얼굴들'을 만났다. 거친 화강석으로 조각된 작은 인물상들은 보는 내내 빙그레 웃음을 짓게 한다. 온화한 미소에 푸근함이 느껴지는 '미소 나한'을 비롯해 넥타이를 매고 참선을 하고 있는 남자, 소박한 모습의 비천상과 부처상. 모두 '따뜻한 미소'로 삶에 지친 우리들의 등을 토닥이고 손을 잡아 주는 듯하다.

이 작품들은 석불 조각가 오채현의 '돌에 새긴 희망의 염화미소'전(2021년10월31일까지)에서 만날 수 있다. 이탈리아 까라라 국립미술아카데미에서 수학한 오 작가는 석불 조각으로 이미 명성이 높다. 투박한 화강석을 쪼아 익살스러운 한국적 정서를 표현해 내는 그의 대표작으로는 바티칸 한국대사관에 설치된 한복 입은 성모상 등을 들 수 있다.

석불의 미소를 보고 난 후 지난해 아는 이로부터 받은 책을 다시 펼쳐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영월 장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전에 다녀온 그가 '너무 감동적인 전시'였다며 선물로 준, 박물관에서 발행한 150쪽 분량의 동명 책자다. 화제를 모았던 이 전시는 2001년 강원도 영월 창령사 터에서 발견된 나한상 88점을 선보이는 기획이었다.

나한(羅漢)은 아라한(阿羅漢)의 줄임말로 부처의 가르침을 깨달은 성자를 말한다. 책에서 만나는 '얼굴'은 복을 구하고 안녕을 바라는 인간적인 모습에서부터 깨달음을 얻으려는 구도자의 성스러운 모습까지 다채로웠다. 무엇보다 웃고, 울고, 슬퍼하는 인간의 모습을 자연스레 담고 있는 평범한 얼굴들은 한 장 한 장 책을 넘길 때마다 깊은 감동을 주었다.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는 작은 나한상을 비롯해 사면에 부처를 조각한 '사방불'과 오 작가가 즐겨 조각하는 해학 넘치는 호랑이 등 또 다른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휴대폰으로 찍어 온 '나한 미소' 등의 작품을 들여다볼 때마다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그 소박한 조각들은 나의 얼굴이고 또 당신의 얼굴이기도 하다. 절집 경내를 거닐고, 북카페에 들러 대숲 일렁이는 카페 테라스에서 차 한 잔 마시며 '행복한 미소'들을 만나 보시길.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